

6.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채권투자 급증 배경 및 평가

(국제국 외환분석체계개선반 표상원·전정호)

1. 24.1/4분기중 개인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91억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21.1/4분기(108달러) 이후 가장 컸으며, 특히 해외채권투자 규모(39억달러)는 사상 최대(분기 기준)를 기록하였다. 기간 중 개인의 해외채권투자 규모는 보험사·증권사의 투자 규모보다 컸으며 해외채권 투자가 활발했던 17년(33억달러)과 23년(29억달러) 연중 투자 규모를 넘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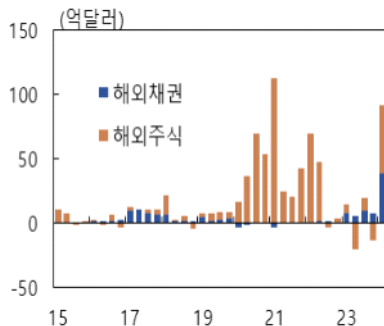
2. 개인의 해외채권투자는 증권사를 통한 직접투자는 확대된 반면 ETF 등을 통한 간접투자는 축소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채권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브라질 채권에도 일부 투자하였다.

3. 내외금리차 역전폭 확대로 해외채권의 투자매력이 증대된 점이 개인의 해외채권투자 확대의 주요 배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들어 미국채금리(3년물)가 4% 중반으로 반등함에 따라 내외금리차(국고채 금리 - 미국채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면서 해외채권의 투자매력이 증대되었다. 또한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상존함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자본이득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고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약화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해외채권 등에 대한 투자규모가 확대된 것을 보면 높은 환율에 대한 개인의 투자 민감도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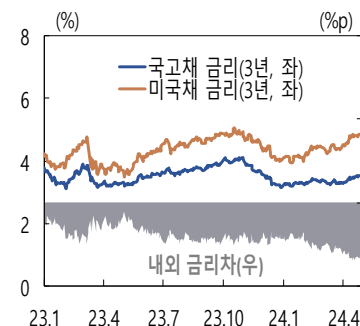
5. 개인의 해외채권투자 확대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시경제적으로는 대외금융자산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해외채권투자가 대체로 환헤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내외금리차 역전이 지속될 경우 개인의 캐리트레이드 수요가 이어지며 외환수급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자료: 외환전산망

<한·미 국채금리>



자료: ECOS

<환율 및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자료: 외환전산망, ECOS